

미중 간 사회과학 지식체계에서의 경쟁

김 헌 준
고려대학교

2016년 11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6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미중 간 사회과학 지식체계에서의 경쟁”
ISBN 979-11-87558-16-3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미중 간 사회과학 지식체계에서의 경쟁

김 헌 준
고려대학교

I. 서론

21세기 국제정치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가장 중요한 두 행위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광범위하게 퍼진 미국 쇠퇴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 세계적 영향력은 정치, 경제, 군사 및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지속되고 있다(Zakaria 2012, 41-78). 하지만 중국의 부상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고, 최근 중국이 아시아와 세계에서 드러내는 외교, 경제 및 군사 영역에서의 도전적이고 단호한 모습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Schweller and Pu 2011, 41-72). 중국은 이미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기준으로 2010년 세계 2위 국가인 일본을 따라 잡았으며, 2014년에는 국내총생산 구매력 환산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로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 군사적으로 중국은 현재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으며, 2035년에는 전 세계적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Jacques 2009). 그러므로 미국의 주도과 중국의 도전이란 국제질서와 구도는 적어도 21세기 중반까지 지속될 전망이다(Joffe 2009; Freedman 2010).

이런 이유에서 미중관계에 관한 많은 전문서적과 대중서적들이 출판되었고,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군사/전략적 측면이나 경제/금융 등의 소위 경성권력(hard power)에서의 갈등을 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까지 미중 관계의 분석은 주로 권력, 안보, 전략, 경제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역 이외에도 소위 연성권력(soft power)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의 미중 간 경쟁과 갈등 또한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물론 연성권력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의 강대국 간 경쟁과 갈등은 21세기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동일한 앵글로-색슨 문명권으로 분류되는 영국과 미국 간 권력의 전환기에 있어서도 경성권력만이 아닌 연성권력에서의 경쟁과 갈등이 있었다. 특히 영국과 미국은 이 시기에 노예제/무역, 민주주의(정치체제), 자유무역 규범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와 경쟁이 있었다(Lorimer 1976; Prochaska 2012).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과 미국의 관계와 다른 점 중 특징적인 부분은 양국관계가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이고 이런 점에서 양국 간 연



성권력에서의 경쟁과 갈등은 더욱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현재 국제정치 시스템은 16세기에 태동되고, 18세기에 완성된 모습을 갖춘 유럽 국제정치질서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형성되었다(Bull and Watson 1985). 이런 이유에서 근대 국제정치의 태동 이후 대부분의 세력전이 모두가 유럽 문명 내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19세기 구미열강이 처음으로 중국 및 인도 문명과의 충돌했던 과정을 고려하면, 미중 간 패권 이전은 여전히 매우 이질적 문명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충돌의 요소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를 볼 때, 중국이 서구 근대국제질서로 편입된 이후, 구미국가와 중국 사이에 규범과 가치관의 교류 및 충돌은 항상 있어 왔다(Gong 1984; Hobson 2004; Suzuki 2009; Kang 2013).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미중관계에서는 기존에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세계관, 가치, 신념, 정체성 등 다양한 ‘관념의 층위’(level of ideas)에서의 갈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전환기 미중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의 영역도 당연히 보아야 하지만 그러한 요소만큼 중요성을 갖는 가치관, 규범, 지식, 정보와 문화, 기술, 환경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연성권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유출되어 <뉴욕타임스>에 공개된 중국공산당의 내부문건이 있다. 이 문건은 공산당 고위간부들의 행동 지침에 관한 지령으로 서구에서 유입되는 체제 전복 성향의 아이디어를 배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서구적 민주주의,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의 추구, 언론의 자유와 시민적 참여,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혁, 그리고 공산당의 과거사에 대한 허무주의적 비판 등이다(Buckley 2013). 이 문건을 보면 연성권력에서의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첫 번째 전선은 우선적으로는 서구적 가치와 관념, 원칙 등의 중국 국내 유입을 막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이외에도 최근 중국의 국가보안법 개정에서도 이러한 점은 드러난다. 중국은 최근의 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안법 적용 범위를 사이버공간(cyberspace)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영역까지 넓혀 안보를 적용하고 있다(Wong 2015). 이외에도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변호사에 대한 체포와 구금, 비정부기구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 등을 보아도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Yu 2015).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서구의 아이디어를 막으려는 시도가 가장 1차적인 것이었다면 이를 넘어서 국외에서 연성권력 간 갈등과 경쟁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는 서구의 이념과 원칙, 제도와 방식에 대응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을 둘러싼 중국의 외교 전략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중국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관할권 문제를 지적하였고, 필리핀 정부의 배후에 미국이 있고, 중국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절대로 미국 주도의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이로부터 더 나아가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적 가치와 원칙을 알리고 전파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500여 개의 공자학원을 만들어 중국어와 중국적 가치를 전파하려고 노력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투자하거나 약속한 돈은 현재까지 1조 4,1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 중국은 외무부 내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출신의 팀장을 중심으로 국제법팀을 강화하여 영유권 문제, 부패관련 범죄인 인도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Ng 2015). 또한 중국은 최근 시진핑 주석의 영국 방문과 왕이 외교부장의 캐나다 방문에서도 드러났듯이 자국의 인



권 상황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적극적 공세로 맞서고 있다.

중국의 가치관과 규범을 만들고 그것을 확산하려는 모습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규범은, 핵의 선제 사용 금지(no first use)와 같이 상당 부분 정당성을 지니고 있고, 내정불간섭과 불개입, 주권의 원칙의 철저한 존중과 같이 현재 제3세계 국가들의 주장과 공유되는 부분도 많아 설득력을 갖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은 점차 ‘중국적 특색’(Chinese characteristics)을 지닌 다양한 규범을 개발하고 전파하려고 한다(정재호 2011; Foot 2000). 중국은 이미 중국적 특색을 발견해 적용하려는 시도를 경제, 개발 발전, 민주주의,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그리고 다양한 학문 분과 등에서 시도하고 있다(Haung 2008; Lamp-ton 2008; Tsai 2007; Yan 2011; Chan et al. 2011). 또한 최근 문화부부장을 임용하면서 중국의 문화권력 및 연성권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인사인 류오슈강 당 선전부부장을 임명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Zhuang 2014).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규범 영역의 갈등을 어느 한 방향으로 해소하기보다는 현존하는 가치와 원칙들의 정당성의 원천을 찾아내고 지지 세력을 모아 강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연성권력에서의 미중 간 갈등을 미중 간 사회과학 지식체계에서의 갈등과 경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사회과학 지식체계를 살펴보는 이유는 미중 간 경쟁과 갈등 요인이 크게는 국제질서(international order)에 대한 논의일 것이고 이러한 국제질서를 상상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국제정치학(international relations)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정치학은 크게 보면 사회과학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과학 학문 분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미중 간 연성권력에서의 경쟁과 갈등을 보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공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최근 미중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주로 언급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인 세력전이이론과 국제관계에 있어 가치관과 이념 등 관념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을 연결한다. 둘째,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와 전망에서 미중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미중 간 국제정치이론에서의 경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미중 간 경쟁이지만 현재까지는 미국 중심의 주류 국제정치학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주목하여 살펴본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도전이 가지는 강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로 인한 지식체계에서의 경쟁 구도가 향후 미중관계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II. 이론적 분석틀

연성권력의 중요성은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세력전이이론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최근 미중 관계는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에서 패권국과 부상국의 관계로 파악된다(Chan 2008; 2005; Tammen and Kugler 2006). 세력전이 이론은 국제정치 질서가 근본적으로 위계적인 체제(hierarchical system)라고 파악한다. 이 위계질서 내에는 패권국(dominant power), 강대국(great powers), 중견국(middle powers), 약소국(small powers)들이 피라미드 형태로 존재한다(Organski 1958, 326). 세력전이 이론은 이러한 체제 내에서 전쟁의 발생을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설명한



다. 첫째 변수는 패권국과 부상국 간의 상대적인 국력(relative power)이고 둘째 변수는 현존하는 질서에 대한 패권국과 부상국의 만족도이다. 즉 국력의 정도(degree of power)와 만족도의 정도(degree of satisfaction)가 국제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과 평화를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국제정치에서 전쟁은 부상국이 현재 상태(status quo)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그 현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그리고 실제로 현재 상태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을 때 일어난다.

이 이론을 미중관계에 적용시켜보면 첫째 변수 즉, 국력의 정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미국과 중국이 곧 대등(parity)해지리라고 예측한다.¹ 세력전이 이론에 있어 국력은 주로 인구의 크기, 국내총생산으로 대표되는 생산력, 그리고 정치적 능력(political capacity)으로 측정되는데 이 중 정치적 능력은 “변덕스럽고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인구와 생산력 두 요인으로 측정된다(Kugler and Tammen 2004, 39). 대부분의 세력전이 이론가들은 이러한 인구와 생산력은 군사력으로 변성(metamorphose)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본다(Tammen and Kugler 2006, 45). 오르간스키는 이미 1958년 그의 저서 《세계정치》(World Politics) 초판에서 새로운 도전자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Organski 1958, 321). 그는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가진 중국이 산업화에 성공한다면 러시아 이후의 주된 도전자가 되리라고 지목하였다. 같은 이유로 인도가 중국에 주요한 도전자가 되리라고 내다보았고, 이러한 아시아의 부상으로 인해 미국과 서구 유럽은 그 주도권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Tammen 2008).

하지만 세력전이 이론으로 미중관계에서 있어 가장 측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둘째 변수인 만족도의 정도이다. 세력전이이론에 있어 만족도는 “분쟁의 주요 결정자”(major determinant of conflict)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핵심 변수이다(Kugler and Tammen 2004). 탐먼 (R. L. Tammen)과 쿠글러 (J. Kugler)는 미중관계에 있어 만족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중요성을 부여한다.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21세기 말 중국이 국제정치에 있어서 패권국이 될 것인가 아니라, 패권국이 되는 중국이 현존하는 국제체제에 공개적으로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현존하는 국제 공동체에 참여하고 이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 안정에 있어서의 핵심은 부상국이 현재 상태(status quo)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이다(Tammen and Kugler 2006, 46).

이렇듯 만족도가 세력전이에 있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 만족도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 및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다(Tammen 2008, 322). 세력전이 이론가조차도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만족도를 결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라고 인정한다(Efird et al. 2003, 297). 일부 학자들은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량하기 위해 동맹 포트폴리오의 유사성을 계량화한 S-statistics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는 아주 거친 측정법으로 정작 동일한 이론가들의 미중관계의 분석에서도 이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Tammen and Kugler 2006). 많은 세력전이 이론가들은 이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군비 증강, 동맹의 형성, 경제나 안보 정책의 조율, 국내 정치구조, 상호간 신뢰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Tammen 2008, 322).

¹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반론으로는 Beckley(2011/12); Shambaugh(2013)를 참조.



특히 미중관계에서의 만족도를 보기 위해서 탐먼(R. L. Tammen)과 쿠글러(J. Kugler)는 다음 다섯 가지 정도를 보아야 한다고 제시한다. 첫째, 미중 간 영토 분쟁이 있는가, 둘째, 양국의 군비 확장이 양국 간 군비경쟁으로 변질 조짐이 있는가, 셋째, 중국이 현재 국제정치의 규칙에 불만이 있는가, 넷째, 미중 간 심각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미중 간 교역과 협력에 있어서 구속력이 있는 패턴이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Tammen and Kugler 2006, 46-50). 하지만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유사한 현상을 측정하므로 순환논리에 빠지기 때문에 미중 간 분쟁 가능성을 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 즉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전쟁과 평화를 종속 변수로 보는데 만족도 자체를 측정하기 위해 종속변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토 분쟁과 군비 경쟁을 보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동일한 동어반복(tautology)일 뿐이다. 결국 나머지 세 가지 요인, 즉 현존 규칙에 대한 만족도, 이데올로기에서의 갈등, 그리고 제도화된 협력이 중요한데 이 세 측면은 모두 국제규범 연구의 대상이다.

국제규범(international norm)이란 국제관계에서 “정체성을 고려할 때 무엇이 적절한 행위인지 아닌지에 관한 구성원들의 집단적 기대”(collective expectations for the proper behavior with a given identity)이다(Katzenstein 1996, 5). 이는 국제정치에 있어 특정 행위가 적절 혹은 적절치 못한가, 수용 가능한가 혹은 불가능한가, 정당한가 혹은 부당한가에 대한 암묵적 혹은 명시적인 가치체계(value system)이다. 현재 국제정치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많은 국제규범이 존재하지만, 대표적 것으로는 주권, 정전(just war), 반핵, 반노예제, 반아파르트하이트(anti-Apartheid), 탈식민주의, 인권, 환경, 자유무역, 경제자유화 등이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군사 및 경제 전략뿐만 아니라 인권, 비동맹, 민주주의, 발전, 반부패, 언론 자유, 종교 자유, 법치, 인도적 개입, 국제원조, 보호책임, 금융 및 통화 정책, 기후변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마찰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전환기 미중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의 영역도 당연히 보아야 하지만 그러한 요소만큼 중요성을 갖는 가치관, 규범, 지식, 정보와 문화, 기술, 환경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현존하는 규칙, 즉 국제질서에 대한 만족도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국제정치학과 그 이론의 연구 대상이다. 국제정치학과 국제질서에 대한 연결 고리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고찰하였다. 우선 미국 국제정치학을 분석한 호프만(S. Hoffmann)은 국제정치이론이 (1)지적 경향성(intellectual predispositions), (2)정치적 상황(political circumstances), (3)제도적 기회(institutional opportunities)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Hoffmann 1977). 이와 유사하게 할리데이(F. Halliday)는 국제정치이론이 이를 둘러싼 세 동심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Halliday 1994). 이 동심원은 우선, (1)학문 내부에서의 변화와 논쟁, (2)다른 영역의 사회과학에서의 새로운 관념의 유입, (3)현실 정치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 두 학자의 연구를 보면 이론은 필수적으로 현실 국제정치적 상황을 반영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국제정치이론이 반드시 현실을 거울처럼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슈미트(B. Schmidt)의 경우, 학문과 현실 간 관계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인다. 그는 현재 국제정치학이론의 역사를 정리한 많은 논문들이 현실에서의 변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맥락적 설명(contextual explanation)에 경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양차대전 사이에 있었던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활동을 중시하던 자유주의, 제도주의적 시각이 2차 대전의 발발로 인해 급격히 쇠락하고 현실주의가 등장했다고 보는 시각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Schmidt 1998, 433-459). 하지만 슈미트는 이러한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이론이 현실을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시간의 간극(time gap)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둘째, 외부 세계의 변화가 학자들에게 균질적인 반응과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 슈미트는 외부 세계의 변화와 이론에서의 나타나는 개념적 변화 간의 연결 고리를 경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인식(perception)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가와 학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III.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와 전망: 미중 간 국제정치이론에서의 경쟁

1. 사회과학 전반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새로운 시도

국제정치학이론에서의 미중 간 경쟁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체 사회과학에서 유사한 경향이 있는가 파악하였다. 최근 중국학술지에 게재된 정치학, 국제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지리학, 행정학 논문 중 중국적(中国的), 중국특색의(中国特色的), 본토화(本土化), 중국학파(中国学派)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온 각각의 논문의 초록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최근 사회과학의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다양한 논문이 있었지만,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논문은 시기별 학문의 발전 특징에 대해 정리한 논문이다. 이러한 논문은 흔히 현재까지의 경향을 살펴보는 논문(state of the art)으로 각 시기마다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논문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각 학문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 경로를 설명하고 각 학문이나 세부 분과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그 학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즉 단순히 성찰적으로 과거의 경향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의 발전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문이다. 이러한 논문은 사회과학에서 중국 특색의 이론 정립과 관련된 논문과 더불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많이 지적되는 문제점은 현존하는 이론의 깊이, 방법론의 문제, 서양 학문에 매몰되어 있는 경향 등이다. 이를 살펴보면, 이미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흔히 사회과학에서 성찰적인 경향이 나타나기에 앞서 혹은 그와 동시에 그 당시까지의 학문의 경향을 개괄하는 연구가 나타난다. 최근 중국의 사회과학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둘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경향은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이 마르크스주의 혹은 덩샤오핑 이론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논문은 대부분 중국 특색의 이론을 정립할 때 마르크스주의 혹은 덩샤오핑 이론을 이론적 지도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논문들이 ‘반드시’ 마르크스주의나 덩샤오핑 이론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강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과학 전 학문 분야에서 나타나지만 특



히 경제학 논문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논의들은 최근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서 “21세기에 마르크스주의를 재구성”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일치된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시진핑은 최근 사회과학과 철학체계가 “중국의 사회주의 관행을 포괄하는 중국적 특색”을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Huang 2016).

셋째, 다음 부류의 논문은 본토화, 중국화, 중국특색의 이론, 중국 학파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논문이다.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논문의 주장은 상당히 유사하다. 즉, 대부분은 서양에서 들어온 사회과학 학문과 이론들을 중국 철학과 실정에 맞게 바꿔 중국 특색의 이론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논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우선 한 부류의 학자들은 중국의 고유한 역사, 중국의 특이한 상황, 중국이 갖고 있는 문화와 철학 등을 이용해 이를 바탕으로 중국 특색의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그룹의 학자들은 중국만의 사회과학 이론의 정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반드시 중국 고유의 문화와 철학, 사상 등이 기초가 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즉 이들은 외국 학자 혹은 학파의 장점과 한계를 분석하여 중국 특색의 이론 정립에 함의를 도출하려는 학자들이다. 일부는 중국 특색의 이론 정립 시도에 여러 한계가 있다며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논문도 있다.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만 특히 국제정치학과 사회학에서 제3 부류에 해당되는 논문이 가장 많다.

넷째, 다음 부류의 논문은 중국 사회과학이론의 세계화를 언급하고 주장한 논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세 부류의 논문에 비해서는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중국 특색의 학문 정립이 세계화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거나 혹은 중국에서 개발된 사회과학 이론이나 발견들이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학자들은 기존 사회과학 학문이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한편 변화하는 시대상으로 인해 중국과 서구 간 학문적 이론적 교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러한 교류를 통해 중국의 사회과학 이론이 세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중국 사회과학 이론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현실 정치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역이 발전규범 영역이다. 경제 발전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것인가 하는 발전 모델의 규범에서 미중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중국 내부에서는 국가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형태의 중국식 발전모델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는 인식이 강하다(Shambaugh 2013). 이와 함께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 모델의 대안으로서 중국적 발전모델에 관한 논의가 심화되었다. 또한 최근 국제 협력 및 발전 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1918년 쑨원의 저작으로부터 나왔다는 주장이 있다. 즉 쑨원이 중국의 발전에 대해 논하는 저서에서, 국제기구를 수립해 해외원조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주장을 1919년 파리강화에 제출하였다는 근거이다(Helleiner 2014). 최근 이러한 논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안으로서의 베이징 컨센서스에 관한 논의와 담론으로 잘 나타난다(Ramo 2004; Halper 2010). 이는 대내적으로 정부 주도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발전 정책을,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평화적 발전(peaceful rise) 외교정책을 의미한다. 중국의 발전모델은 이렇듯 국내의 발전과 국제 평화 간의 연계, 그리고 유엔헌장과 평화공존 5원칙에 부합하는 국제질서의 구축이라는 국제적인 요인을 중시한다(Chan 2008; Ferchen 2012). 이런 점에서 발전모델에 관한 규범은 중국이



추진하는 비동맹외교 노선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발전규범은 중국이 중시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평화공존 5원칙으로 대변되는 비동맹주의와 함께 중국의 발전규범은 중국의 대표적인 연성권력이다(Nye 2005). 또한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그로 인한 경제력의 축적은 이 연성권력을 더욱 효과적이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연성권력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특히 학문의 실용성을 중시하는 외교정책 연구에서 많이 논의된다(Li 2009; Wang 2011). 연성권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중국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공자 학원(Confucius Institute)을 설립하고 다양한 민간 및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펼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 전문가의 대부분이 미국의 연성권력이 쇠퇴했다고 보고 있고 중국이 대안적 규범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 대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규범이 이 발전규범이다. 하지만 이 규범은 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적 경제체제, 그리고 최근 구축하고 있는 반부패, 민주주의와 경제원조의 연계 원칙과 상반되어 충돌 가능성이 큰 규범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무상 개발원조의 확대 정책과 최근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다양한 전략 등이 있다.

이렇듯 미중 간 사회과학 학문체계에서의 갈등 요인은 사회과학 전반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미중 간 갈등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회과학 학문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다. 이 장에서는 미중 간 사회과학 지식체계에서의 경쟁과 갈등을 보기 위해 국제정치이론에서의 갈등과 긴장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 중 국제정치이론을 보는 이유는 미중 간 경쟁은 가장 큰 틀에서는 국제정치의 장(場), 즉 세계화된 장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이론은 단순히 다양한 사회과학의 여러 세부 분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회과학이론에서 고찰할 수 있는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인 세계체제(global system)를 그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상상(imagine)하고 구성(construct)하려는 국제질서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이론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중국 국제정치학의 역사

중국 국제정치학은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그 근거로 샴보(David Shambaugh)는 중국 국제정치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음의 네 가지 변화를 제시한다(Shambaugh 2011). 첫째, 중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미국 및 유럽의 저명 국제정치학자들을 초청해 한 학기 정도의 수업을 하게 하고 또한 단기 특강의 기회를 많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강연과 수업은 단순히 강연과 수업으로 그치지 않고 중국 대학 및 대학원생들과의 교류 혹은 중국 학자들과의 협업(cowork)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중국은 현재 이미 미국 다음으로 큰 국제정치학 학자 집단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0년도 이후에 시작되었으며 중국에서 국제정치학이 중국의 부상과 함께 인기 학문으로 떠오르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셋째, 중국에서 최근 열성적으로 주류 국제정치이론을 탐구하고 번역해 소개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주류 국제정치이론서가



출판되자마자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친야칭에 의해 번역된 웬트(Alexander Wendt)의 《사회이론과 국제정치》(*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인데 이 책은 초고상태일 때 이미 번역이 시작되어 거의 출판과 동시에 중국어판이 출판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특색(Chinese characteristics)을 지닌 국제정치이론, 혹은 중국학파(Chinese School)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중국 국제정치학계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시도가 항상 중국 국제정치학자들에게 환영을 받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 논란이 있고 논쟁과 비판이 이어지지만 이러한 시도는 지속적으로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국제정치학사(學史)를 정리한 학자들은 대부분 중국 근대 국제정치학의 역사를 개혁개방 이후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에서 국가 간의 관계와 정치를 살펴보는 국제정치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들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중국 국제정치학이론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모습의 국제정치학적 작업이 개혁개방 시기 이후에 발견된다는 의미이다. 개혁개방 이전에 국제정치학은 우선 19세기 중국을 향한 구미열강의 침입에 대한 당대 지식인의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이는 아편전쟁 패배 이후 리양치차오와 같은 사상가들이 국제법과 국제 정치를 파악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Noesselt 2015, 6-7). 최근 일부 학자들은 이후 1900년대 초반에도 현재 국제법에 해당되는 만국공법(萬國公法)과 외교사라는 형태로 학문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들 중 루펑(Lu Peng)은 당시 다양한 강의계획서 분석을 통해 당시의 국제정치학 이론 연구가 국제법, 외교사뿐만 아니라 권력정치(power politics)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가 극동(極東)지역연구의 모습으로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즉 중국에서 다양한 학문과 수업이 존재하였고 이것이 중국 근대 국제정치학의 기원이었다는 주장이다(Peng 2014, 133-155).

또한 개혁개방 이전의 중요한 경향은 중국이 1963년 중국 공산당이 외교연구를 강화를 위해 세 개의 대학(베이징대, 런민대, 푸단대)에 관련 학과를 창설하고 다양한 연구소(CASS, CIIS, CICIR 등)를 조성한 것이다. 이 세 개의 대학은 특히 중국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국제정치학 내부에서도 세부전공과 연구지역을 특화하여 베이징대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지역 중심의 개발도상국 연구를, 런민대에서는 소련과 동유럽 등 사회주의권역 국가들의 연구를, 푸단대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서유럽 등 자본주의 국가들의 연구를 특화해서 맡았다. 이 시기에는 또한 국제정치이론으로서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의 이론이 언급되기도 하였고 특히 레닌의 제국주의론이나 마오쩌둥의 세 개의 세계이론(Three World Theory) 등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 시기의 연구는 샴보가 지적하듯이 매우 열악(poorly developed at best)했고(Shambaugh 2011, 339-372), 그나마 있던 노력도 문화대혁명(1966-1976)으로 완전히 무산되고 그 자취를 감추고 만다. 이런 이유에서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 종결 이후 1976년, 9국제정치학, 정치학과 법학은 문화대혁명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제정치학은 크게 두 방향으로 발전한다. 우선,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급속한 유입과 지속적 발전이고, 둘째 흐름은 중국적 특색을 가진 국제정치이론 혹은 토착화된 국제정치이론으로서의 중국학파를 창출하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두 흐름은 외연적으로는 상반된 것 같이 보이지만 향후 공존하며 중국 국제정치이론의 발전을 이끌어낸다. 중국의 국제정치이론은 그 발생 초기부터 이 두 가지 경향이 적절한 긴장과 갈등을 유지하면서 공존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중국학자들에 의해 주목되었다. 대표적으로 친야칭(Qin Yaqing)은 이러한 두 흐름 간의 긴장관계를 “논쟁을 통한 발전”(progress through debates)으로 파악했다. 이와 유사하게 왕이웨이(Wang Yiwei)는 이러한 긴장관계를 세 단계의 발전 과정으로 이해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국제정치학은 “서구를 우러러보던”(looking up to the West) 1980년대에서, “서구를 직시 혹은 직면하던”(looking straightforwardly at the West)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는 “서구를 앞잡아보는”(looking down at the West) 수준으로 와 있다고 평가한다. 즉 제1기는 주로 서구의 주류 국제정치이론을 수입하고 학습하던 시기이고, 제2기는 서구의 이론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식이 증대하던 시기, 제3기는 중국 자체의 이론이 개발되어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Wang 2009). 왕이웨이는 이를 시기적인 구분으로 인식하였으나 이 세 경향은 다양한 시기에 공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에도 주류 국제정치이론을 수용하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중국특색을 가진 이론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공존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정치학의 발전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개혁개방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1980년대 중국 국제정치학의 발전은 미국의 포드(Ford Foundation), 록펠러(Rockefeller Foundation), 맥아더(MacArthur Foundation) 등으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과 도움이 컸다. 이러한 지원은 1989년 천안문사태까지 지속되는데 천안문사태 이후로는 미국 재단의 입지가 많이 위축되었다. 하지만 국제정치학 학문 자체는 꾸준히 발전하여 1990년대에는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학문(hot discipline)으로 자리 잡게 된다. 현재 중국은 삼보가 지적한 대로 국제정치학 학위수여 기관의 수, 관련 교수와 학생 수, 책과 논문의 수, 논문의 질, 외국학계와의 교류 정도, 학계와 정계의 상호작용의 빈도수에서 큰 발전을 이루어냈다. 중국의 국제정치학은 과거에도,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주류 국제정치이론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전망이다. 중국 국제정치학의 대부분의 중요한 연구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주류 학파를 그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s)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대학에서 국내 박사과 영미권 박사의 교수의 수가 대등하며 소장학자를 중심으로 중국 특색의 이론에 대한 회의가 크다.

이와 동시에 중국에서는 특이하게도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학 혹은 중국학파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시도 또한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개혁개방 직후 국제정치학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중국특색의 이론에 대한 언급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1980년 후안시양(Huan Xiang, 저우언라이 외교정책 보좌관)이 상해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제정치학 및 역사 학술대회에서 덩샤오핑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와 연결해서 ‘중국 특색을 지닌 국제정치이론’의 필요성 최초로 언급했다고 알려진다(Noesselt 2012, 14-15). 이러한 주장은 당시 베이징대 국제정치학과 학과장이었던 리양셔우더(Lian Shoude)에 의해 구체화된다. 그는 “중국 특색을 지닌 국제정치이론의 구성”(Constructing 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이론이 지녀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한다(Liang 1997, 23-39). 첫째,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이 모든 국제정치이론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개념인 생산수단(means of production)이라는 요소가 국제정치이론에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치이론의 목표는 개혁을 통한 발전, 세계평화, 안정과 진보의 균형, 공정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국



제질서이어야 한다. 요약하면 리양셔우더가 주장하는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이론은 중국 사회주의 비전에 기초해야 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에 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Liang 1994, 15-21).

이러한 초기의 다소 거친 주장은 1990년대에 들어 보다 정교화 된다. 1990년대에 서구 주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국제정치이론의 현지화, 본토화(indigenization)의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오면 점증하는 중국의 대외활동과 맞물려 중국이 직면한 국제정치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 고유의 역사, 문화, 사상적 전통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한다. 즉 이 시기는 중국의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자각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정치이론에 있어서 정체성 문제가 등장하면서 기존 서구 국제정치이론을 넘어서는 중국만의 독특한 사상 체계와 방법론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늘어났다. 이 시기에 있었던 주요한 국제정치적 사건도 이 경향을 증대시켰다. 특히 1999년 미국의 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 폭격 사건 이후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비판적 자각이 증가했고, 서구에서 만들어진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했다.

3. 최근 중국에서 주목 받는 국제정치이론

흥미로운 점은 앞에서 언급한 두 경향, 즉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급속한 유입과 발전이라는 현상과 중국 특색을 지닌 국제정치이론의 추구라는 두 현상이 피상적으로는 상반된 두 경향인 것 같지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선 중국 특색을 지닌 국제정치이론의 출현이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불만족에 기인한다. 또한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중국으로의 유입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한 학자들이 이후 주도적으로 중국 특색 이론의 발전도 이끌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선봉인 칭화대 옌슈에통이나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을 수입하고 소개한 외교학원의 천야칭과 같은 학자이다. 이 장에서는 이들 두 학자를 포함하여 현재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이론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정리한다.

자오팅양 (Zhao Tingyang)

자오팅양은 중국 사회과학원 철학자이고 국제정치학자는 아니지만 현재 국제정치이론으로 가장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학자라고 할 수 있다(*The Economist* 16/06/2011). 그는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는 서구의 국제정치 질서의 대안으로서 중국의 전통적인 천하질서의 역할을 강조한다(Zhao 2006). 자오팅양은 현재 국제질서의 기반이 된 베스트팔렌 체제가 지나치게 국제환경의 무정부성을 강조하며 국가 간의 관계를 영합게임(zero-sum)으로 본다고 파악한다. 이는 현존하는 국제체제가 지나치게 군사, 전략적인 면을 강조하기 때문이며, 정치와 도덕을 구분짓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이러한 현재 질서의 대안으로 자오팅양은 전통적인 천하질서를 제시한다. 천하질서는 비록 위계적(hierarchical)이지만 안정적인 형태의 질서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천하질서가 군사력만이 아니라 도덕적, 문화적, 정치적 권력에 의한 지배를 강조하고, 피지배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오팅양은 천하질서를 물질세계와 정신세계, 그리고 정치세



계가 통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국제질서로 파악한다.

옌슈에통 (Yan Xuetong)

옌슈에통은 중국 칭화대 교수로서 지속적으로 중국학과,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 입장 표명해왔다. 그는 모든 국제정치이론은 보편적(universal) 성향을 지니기 때문에 국가별 속성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Ren 2008). 옌슈에통에 따르면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이론을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이를 수 없는 허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있고 좀더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옌슈에통의 주장을 자세히 보면 그가 배격하는 것은 ‘중국 특색 국제정치이론’이나 ‘중국학과’라는 명칭(label)이지 결코 중국 중심의 국제정치학 혹은 국제정치이론을 배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제가 ‘중국 국제정치학과’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이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중국학과’를 주장하기 이전에 그 대신 중국 국제정치이론의 내용에 대해 좀더 고민해야 합니다. (Yan 2011, 256)

어떻게 보면 옌슈에통은 중국 특색 국제정치이론의 가장 영향력 있고 또한 중요한 옹호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작업의 목표는 중국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 그리고 사상에 기초한 ‘보편적 국제정치이론’을 창출하는 것이고, 결국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중국학과라는 명칭은 필요 없어지고, 이 이론이 보편적으로 타당한 이론이 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옌슈에통의 작업은 가장 야심적이고 가장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오팅양의 중국 천하질서의 부활이라는 주장보다도 야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옌슈에통은 중국 고전, 특히 공자, 맹자, 한비자, 순자 등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들을 재해석해서 국제정치이론에 접목을 시도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과 연구자들도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장평과 같은 학자는 이들의 작업을 ‘칭화학과’(Tsinghua School) 혹은 ‘칭화대학교식’ 접근법(Tsinghua approach)이라고 명명하고 있다(Zhang 2012).

옌슈에통의 중국 국제정치이론 작업이 위협적인 또 다른 이유는 옌슈에통이 과학적 방법과 실증주의적 방법의 옹호자이고 중국 내에서 방법론적인 엄격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즉 이는 그의 작업이 주류 국제정치학의 논리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주류 국제정치이론에게 익숙한 서구 학자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느껴질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한 상대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최근 옌슈에통의 저서가 중국 국제정치학자 중에서 최초로 미국의 프린스턴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된 것과 그가 국제수준의 학문작업 기준을 중시하고 이런 것을 위해 학술지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를 만들어 이를 중국학자들과 서구 학자들의 대화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 또한 주목할 점이다(Yan 2011).



친야칭 (Qin Yaqing)

친야칭은 중국 외교학원의 총장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중국학과 및 중국특색의 국제 정치이론을 추구하고 있다. 친야칭은 옌슈에통과 달리 국제정치이론의 보편성(universality)을 믿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다. 특히 그는 사회과학 이론은 자연과학 이론과 달라 특정한 지역적 특색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Qin 2007). 친야칭은 최근 중국 학파를 창출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중국 국제정치학계에 이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서구에서 유입된 주류 국제정치이론이 너무나 강력하게 중국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다. 둘째 요인은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이론을 만들 ‘핵심개념’(core concept)이나 사상이 부재하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자오팅양식의 중국 천하질서를 부활시키려는 작업이나 옌슈에통식의 중국 전통 사상과 역사, 문화 탐구 작업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친야칭에 따르면 자오팅양의 작업의 경우와 같은 중국의 특수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개념을 현대 국제정치이론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이어서 결국에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옌슈에통의 작업은 전통적인 사상가와 역사 전통을 이용해서 현재 국제정치 현상과 중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 작업 또한 다음의 두 가지 오류를 범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친야칭에 의하면, 옌슈에통은 중국의 전통 사례를 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서구 주류 국제정치이론, 특히 현실주의의 국제정치 이론의 핵심 개념인 권력(power), 헤게모니(hegemony),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 등에 상당히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옌슈에통은 방법론에 있어서도 실증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가설 검증(hypothesis testing)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구의 주류 국제정치학의 방법으로 중국 특유의 이론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친야칭은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이론은 중국적 특유의 ‘관계성’(relationality)을 핵심 개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Qin 2012, 78).

기타 학자들의 시도

이와 함께 다양한 학자들도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이론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탕스핑(Tang Shiping), 왕지스(Wang Jisi) 등이 있다. 후셔우준(Hu Shoujun)과 진잉중(Jin Yingzhong)의 공생이론(symbiosis theory)이나 스킨유(Shi Chih-yu)와 황치웅치유(Huang Chiung-Chiu)의 관계균형이론(balance of relationship theory)은 상당한 발전을 이룬 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관계균형이론은 공자 이론에 근거한 사고 체계로 국가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의 형성(reciprocal relationship)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즉 국제정치란 장기적인 국가들 간의 관계를 설정해보면 합리적 사고를 넘어서 관념, 제도, 정체성 등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주장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 간에 평화롭고 건설적인 관계의 형성이자 상호성(reciprocation)과 조화의 달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명백하고 시기적으로 가까운 국익을 포기하고서라도 관계를 유지(preservation of relationship)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는 주장이다.



IV. 중국 국제정치학에서의 도전에 대한 평가

1. 새로운 도전의 의미

그렇다면 과연 중국특색의 이론 혹은 중국학파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국제정치학에 있어 국가적 혹은 민족적 특색을 갖는 국제정치이론의 혹은 국가별 학파의 존재라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에 관하여는 많은 학자들이 국제정치학 학문의 태동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중국에서 중국학파나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이론이 주장될 때 자주 언급되는 요인은 ‘국제정치학에서의 인종중심적 경향(ethnocentrism in IR)이다. 이는 호프만(Stanley Hoffmann)이 “미국 사회과학으로서의 국제정치학”(IR as an American social science)을 논의하면서부터 국제정치학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논문에서 호프만은 국제정치학이 주로 미국의 문제에 집중해서 발전하였고 지속적으로 그 시대에 당면한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주장한다(Hoffmann 1977, 43). 이후 많은 학자들이 국제정치학 발전을 설명하면서도 동일한 경향을 발견하였다(Smith 2000; Crawford and Jarvis 2000).

또 다른 경향은 국제정치학에 있어서 영국학파(English School)의 소개와 발전이다. 영국학파란 주로 영국에 위치하며 유사한 존재론적 가정을 갖고, 미국적 실증주의의 과학적 방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지닌 국제정치학 학파를 말한다(Dunne 2008, 267). 흥미로운 점은 이 ‘미국 사회과학으로서의 국제정치학’과 ‘영국학파’라는 두 가지 담론은 중국에서 토착적 국제정치학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된다는 점이다. 우선 ‘미국 사회과학으로서의 국제정치학’은 현재 서구 중심 주류 국제정치학의 유입과 발전을 비판하면서 국제정치학에 있어 지적 식민주의나 서양 의존도를 비판할 때 많이 언급된다. 또한 영국학파에 관한 논의는 중국학파의 하나의 가능성 있고 효과적인 모델로서 언급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런시아오 교수는 “영국학파는 자기들만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미국 국제정치학의 대안으로 발전했다. 만약에 영국학파가 가능하다면, 왜 중국학파 또한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기도 한다(Ren 2008, 297).

이상에서 살펴보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이론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국가성이나 민족성을 지닌 국제정치이론에 관한 논의는 그 유용성과 실효성 문제를 떠나 학문의 발전 초기부터 존재해왔다. 둘째, 그런 면에서 최근 중국에서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이론을 만들려는 시도는 국제정치학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도도 최초의 시도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서구 중심의 국제정치학에서 멀어지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1980년대 이후에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Gereau 1981; Holsti 1985; Higgott and Richardson 1991; Brown 2001; Rajae 1999; Inoguchi and Bacon 2001; Dunn and Shaw 2001; Tickner 2003). 셋째, 하지만 중국의 최근 시도는 중국의 국제정치적 현상, 즉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중요하다. 중국의 부상과 중국 국제정치학의 부상은 같은 현상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중국의 부상의 문제에만 치중해왔다. 마지막으로,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이론의 등장은 현재 문제점이 없진 않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이 증가할 현상이다. 이를 단순히 의미 없는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변화의 속도와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러한 연구를 하는 학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주류 국제정치학계와의 교류가 급증하고 있다. 즉 미중



간 국제정치이론에서의 경쟁과 갈등은 지속될 것이고,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학은 비록 현재는 큰 발전이 없더라도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중요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장용진(Yongjin Zhang)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본다(Zhang and Chang 2016). 첫째,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학자들이 국제정치 현상 일반이나 중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데 있어 기존 서구 주류이론의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부상 이전에는 국제정치를 잘 설명하던 서구 주류 이론이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 내에서 그 유용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전 세계적인 활동은 중국학자들에게 새로운 연구 질문과 퍼즐을 제공했다. 이러한 점은 중국 국제정치이론의 2005년 이후 다변화된 모습에서도 알 수 있다. 2005년 이전 주요 연구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 기반을 둔 강대국 정치와 안보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2005년 이후에는 자유주의 및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과 그 핵심 개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이 관심이 있는 전략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하던 정체성, 세계화,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협력, 상호의존, 초국가주의, 다자주의, 국제기구 등의 이슈가 중요하게 등장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즉 미국과 서구가 만들어 온 세계질서에 도전하고 그 질서를 대체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있었고, 이를 학계에서 정당화하여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정당화 과정은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국가에서 나오는 현상으로 많은 경우 학문적 작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최근 구성주의 연구에서 이러한 정당화 과정은 ‘논쟁의 논리’(logic of arguing)로 개념화되어 연구되고 있다(Risse 1999).

2. 새로운 도전의 한계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국제정치이론에 문제나 한계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학자들 간에도 중국학과나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이론에 관한 기대가 다르다. 예를 들어, 옌슈에통의 제자인 쑤슈에펑(Sun Xuefen)의 경우, 현재 칭화접근법(Tsinghua approach)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의 목적이 중국 고전에서부터 빌려온 사상과 역사를 이용해서 현재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받는 데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그는 고전적인 사상과 중국 전통의 문화, 그리고 역사적 경험 등을 토대로 새로운 이론을 개발해 중국에는 현재 이론들을 대체(develop, supplement, or even replace current theories)하는 데까지 있다고 주장한다(Xu and Sun 2015, 6). 물론 모든 이론가들이 이런 야심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친야칭의 경우 중국적 사회과학이 가능하다고 믿고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국 이론이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을 보완(complement)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나타난 중국 특색의 이론의 한계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이론 혹은 중국학과에서는 중국 예외주의적 사고 (Chinese exceptionalism)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 예외주의란 외자신의 그룹을 동질적이고, 특이하고, 우월하게 보는 시각”을 의미한다(Acharya 2014, 5).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예외주의의 경우는 국제 인권과 민주주의 담론에서 나타났던 ‘아시아적 인권’, ‘아시아적 민주주의’, ‘아시아적 가치’ 등이다. 중국적 국제정치학은 향후 대표적인 예외주의로 나타날 경향이 크다고 본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중국의



평화적 부상(peaceful rise)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의 핵심은 중국은 기존에 국제질서를 도전했던 국가나 다른 강대국과는 다를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사고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 옌슈에통의 경우, 강대국은 세 가지 방식으로 국제규범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주장한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모범을 보이는 과정(process of demonstration)으로서(Yan 2011), 이는 기존의 힘에 의한 지배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둘째, 현재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이론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한계로는 이원주의적 사고(dualism)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자오팅양의 이론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가 제시하는 천하질서는 베스트팔렌 체제와 극명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된다. 전자가 질서, 정당성,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이 있는 사회라면, 후자는 영합게임(zero-sum game), 군사적 지배, 무도덕적(amoral) 체제로 구분된다(Zhao 2006, 29-41). 이 사고에 따르면 모든 중국적인 것(중국의 전통, 문화, 역사, 사상 등)은 좋고 바람직한 것으로 분류되고 나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현존하는 국제체제, 즉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에 기인한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형성된다. 즉 모든 중국적인 것들을 바람직하게 평가하고 감상적으로 평가할(romanticization)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이는 비단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모든 국가가 특히 자국 토착의 학문 혹은 토착의 이론을 추구하는 경우 낭만화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학자들의 입장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대중의 감정적인 입장(민족주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셋째, 중국 국제정치학의 문제점은 강대국 위주의 사고에 기반한다는 점이다(Acharaya 2014, 5). 물론 경제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에게 강대국으로서의 자의식(self-consciousness)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자의식은 분명 자만심(self-conceit)과는 차이가 있다. 친야칭과 옌슈에통을 자극해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게 했던 정도의 건강하고 적당한 자의식은 분명 이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문제는 이를 넘어서는 자만심이 곳곳에 보인다는 것이다. 상당히 온건한 옌슈에통의 경우에도 중국 주도의 위계질서 하에서 약소국들의 “자발적인 굴복”(voluntary submission for small states in China-led hierarchy)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그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동아시아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고 본다(Xu and Sun 2016, 5). 더 나아가 주권국 간 평등한 위치가 규범으로 자리 잡은 현대 국제정치에서 옌슈에통이 주장하는 위계질서는 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Cunningham-Cross and Callahan 2011).

마지막으로, 중국 국제정치학의 한계와 문제는 중국의 이론들이 노골적이고 명시적으로 국익(national interest) 혹은 중국공산당의 이익의 추구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Cunningham-Cross and Callahan 2011). 중국 국제정치이론의 등장에 대해서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 작업이 중국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담고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송시닝(Song Xinning)은 중국 국제정치학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시하면서 가장 큰 것으로 중국학자들이 정부의 외교정책을 공식적으로 비판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 족쇄’(ideological shackle)라고 언급한다(Xinning 2001, 61-74). 다른 학자의 경우에도 중국 국제정치학의 목적이 초창기 1980년대의 정부의 요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국제정치이론의 목적은 중국의 국가이익을 보장하고, 중국공산당 일당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이다(Noesselt 2015, 6-7). 이는 앞서 언급한 2004년 유출된 중앙당 문건이나 최근 강화된 국가보안법의 예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Wong 2015; He 2011).



V. 결론

본고에서는 미중 간 연성권력에서의 갈등과 경쟁을 사회과학 지식체계에서의 경쟁과 갈등, 그로 인해 도출되는 인식의 문제를 통해 파악하였다. 최근 이런 시도는 점증하고 있으며 흥미로운 연구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우선, 베클리(Beckley)는 그의 논문 “China's Century?”에서 미중 간 권력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적 부, 전통적인 군사력과 함께 혁신력(innovation)을 포함한다(Beckley 2012). 이 중 혁신력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으로 주로 과학, 기술에서의 혁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특히 특허의 수, 외국 유학생의 수,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비용 등을 핵심 요인을 놓고 살펴본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향후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베클리의 경우도 그렇지만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현존하는 국제질서에 순응할 것이고 기존에 미국이 설정해 놓은 게임의 규칙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그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는 최근 중국의 모습을 볼 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두 번째 유형의 연구는 크리스텐센(Kristensen)과 닐슨(Nielsen)의 연구로 중국 국제정치학의 발전과 변화가 어떠한 외부적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이다(Kristensen and Nielsen 2013, 19-40).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중국 국제정치학의 발전의 원인과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다. 특히 이중에서 경제적 성장이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대학/과/학문에 들어오는 예산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다(Liu and Liu 2005; Mohrman 2008; Yan 2010; Huang 2010).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전반적인 중국 교수들의 월급 및 연구비는 증가했고 프로젝트 펀딩도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국제정치학에 관련된 연구비는 전체 인문 사회과학 연구비의 3% 정도로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Wei 2010). 즉 중국의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이런 유형의 연구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지식체계에서의 경쟁을 국제정치의 인식의 문제로 파악할 수도 있다. 국제정치에서의 인식의 문제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한 저비스(R. Jervis)에 따르면 인식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관성(consistency)을 추구한다는 원칙인데, 이는 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논리적인 일관성의 추구까지 포함한다. 즉 인식은 항상 일관성과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이유에서 지속적인 혹은 다양한 방면에서의 갈등 상황은 상대에 대한 부정적 혹은 적대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공고화시키며 새로운 영역에까지 재생산한다(Jervis 1976). 가치나 규범에서의 이질성은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거나 재생산하기 좋은 토양을 제공한다(Jervis 1976, 121).

저비스는 그의 책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에서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 그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다.”(If you are waiting for one, it will come along.)라는 흥미로운 통찰을 하였다(Jervis 1976, 14). 이는 인식의 독자성을 주장한 것으로 그의 책 전반에서 인식의 독자성과 그 인과 메커니즘에 대해 입증한다. 특히 오인식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으로 합리성을 뛰어넘어 가치관과 규범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감정(emotion)이 있다고 주장한다(Jervis 1976, 55). 특히 저비스는 합리적인 국가 간 상호작용을 넘어



적대감(antagonism)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냉전 초기 미중관계를 든다.

특히 미중관계에서 인식의 중요성은 미중 간 문화나 문명뿐만 아니라 가치나 규범에서 이질성이 발견된다는 점에 있다. 저비스는 합리적 일관성(rational consistency)의 예로 인지-애착 균형(cognitive-affective balance)를 제시한다. 즉 국가 간 선호도가 국가의 정책 간 차이의 간극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즉 일관성을 추구하려는 경향 때문에 한 가지 부분에 대해 상대국을 좋게 평가하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다른 분야에서도 좋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Jervis 1976, 121). 이 주장은 양국 간 선호와 적대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미중관계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미국과 중국은 많은 분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는 최근 ‘중국 불안심리’(China anxiety)까지 일으키고 있다(Zhang 2013). 최근 흥미로운 주장은 중국의 부상은 중국의 등장 자체가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중국의 부상이 서구 중심의 국제정치 질서의 매우 중요한 철학적 가정과 정치적 신념에 도전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Zhang 2013). 즉 중국의 부상이 서구에게 불편한 이유는, 첫째는 권위주의적 강대국의 부상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로 인한 기존의 자유주의적 세계질서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



참고문헌

- 정재호. 2011.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Acharya, Amitav. 2014. “Global International Relations (IR) and Regional World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 5.
- Beckley, Michael. 2011/12. “China’s Century? Why America’s Edge Will Endure.” *International Security* 36, 3: 41-78.
- Brown, Chris. 2001. “Fog in the Channel: Continental IR Theory Isolated.” In *International Relations - Still an American Social Science? Toward Diversity in International Thought*, ed. Robert M. A. Crawford and Darryl S. L. Jarvis, 203-220.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Buckley, Chris Buckley. 2013. “China Takes Aim At Western Ideas.” *New York Times* 19 April.
- Bull, Hedley and Adam Watson, ed. 1985.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an, Gerald. 2008. “Global Governance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 Preliminary Analysis.” *Copenhagen Journal of Asian Studies* 26, 2: 82-96.
- Chan, Lai-Ha, Pak K. Lee, and Gerald Chan. 2008. “Rethinking Global Governance: A China Model in the Making?” *Contemporary Politics* 14, 1: 3-19.
- Chan, Steve. 2005. “Is There a Power Trans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Different Faces of National Power.” *Asian Survey* 45, 5: 687-701.
- . 2008. *China, The U.S. and the Power-Transition Theory: A Critique*. New York: Routledge.
- Crawford, Robert M. A. and Darryl S. L. Jarvis, ed. 2000. *International Relations - Still an American Social Science? Toward Diversity in International Though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Cunningham-Cross, Linsay and William A. Callahan. 2011. “Ancient Chinese Thought, Modern Chinese Power.”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4: 349-374.
- Dunn, Kevin C. and Timothy A. Shaw. 2001. *Africa’s Challenge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ew York: Palgrave.
- Dunne, Tim. 2008. “The English School,” in Christian Reus-Smit and Duncan Snidal.” In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fird, Brian, Jacek Kugler, and Gaspare M. Genna. 2003. “From War to Integration: Generalizing Power Transition Theory.” *International Interactions* 29: 297.
- Ferchen, Matt. 2012. “Whose China Model Is It Anyway? The Contentious Search for Consensu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0, 2: 390-420.
- Foot, Rosemary. 2000. *Rights beyond Borders: The Global Community and the Struggle over Human Rights in Chin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eeman, George. 2010. *The Next 100 Years: A Forecast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Anchor.
- Gereau, Frederick. 1981. "The Discipline International Relations: a Multi-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Politics* 43: 779-802.
- Gong, Gerrit W. 1984.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Clarendon Press.
- Halliday, Fred. 1994. *Rethinking International Relations*.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 Halper, Stefan. 2010. *The Beijing Consensus: How China's Authoritarian Model Will Dominate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 He, Baogang. 2011. "The Dilemmas of China's Political Science in the Context of the Rise of China."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Association of Chinese Political Studies* June 18: 257-277.
- Helleiner, Eric. 2014. "Southern Pioneer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Global Governance* 20, 3: 375-388.
- Higgott, Richard and J. L. Richardson. 1995. *International Relations: Global and Australian Perspectives on an Evolving Discipline*. Canberra: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Hobson, John M. 2004. *The Eastern Origins of Western Civilis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fmann, Stanley. 1977. "An American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Dædalus* 106.
- Holsti, Kalevi J. 1985. *The Dividing Discipline: Hegemony and Diversity in International Theory*. Boston: Allen & Unwin.
- Huang, Cary. 2016. "Academics must remake Marxism for 21st Century, says China's President Xi Jinping." *South China Morning Post* May 18.
- Huang, Ping. 2010. "Status of the Social Sciences in China." In *Science Report: Knowledge Divides*, UNESCO.
- Huang, Yasheng. 2008. *Capit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and the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oguchi, Takashi and Paul Bacon. 2001.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Japan: Toward More International Disciplin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 Pacific* 1: 1-20.
- Jacques, Martin. 2009. *When China Rules the World: The Rise of the Middle Kingdom and the End of the Western World*. New York: Penguin.
- Jervis, Robert. 1976.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ffe, Josef. 2009. "The Default Power: The False Prophecy of America's Decline." *Foreign Affairs* 88, 5: 21-35
- Kang, David Kang. 2013. *East Asia Before the West: Five Centuries of Trade and Tribu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atzenstein, Peter J., ed. 1996.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ristensen, Peter M. and Ras T. Nielsen. 2013. "Constructing a Chines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 Sociological Approach to Intellectual Innovation." *International Political Sociology* 7, 1: 19-40.
- Kugler, Jacek and Ronald L. Tammen. 2004. "Regional Challenge: China's Rise to Power." In *Asia-Pacific Region in Transition*. Honolulu: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 Lampton, David M. 2008. *The Three Faces of Chinese Power: Might, Money, and Mind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i, Mingjiang, ed. 2009. *Soft Power: China's Emerging Strategy in International Politics*. Lanham: Lexington Books.
- Liang, Shoude. 1994. "International Politic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Stud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1: 15-21.
- . 1997. "Constructing 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Political Science* 49: 23-39.
- Liu, Nian Cai and Li Liu. 2005. "University Ranking in China." *Higher Education in Europe* 30, 2: 217-227.
- Lorimer, Douglas A. 1976. "The Role of Anti-Slavery Sentiment in English Reaction to the American Civil War." *The Historical Journal* 19, 2.
- Mohrman, Kathryn. 2008. "The Emerging Global Model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Higher Education Policy* 21, 1: 29-48.
- Ng, Teddy. 2015. "China Eyes International Law Expertise to Help Return Fugitives and Ease Territorial Disputes." *South China Morning Post* April 30.
- Noesselt, Nele. 2012. "Is There a 'Chinese School' of IR?" *GIGA Working Papers* 188: 14-15.
- . 2015. "Revisiting the Debate on Constructing a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China Quarterly* 222: 6-7.
- Nye, Joseph. 2005.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 Organski, A. F. K. 1958. *World Politics*. New York: Alfred A. Knopf.
- Peng, Lu. 2014. "Pre-1949 Chinese IR: An Occluded History."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68: 133-155.
- Prochaska, Frank Prochaska. 2012. *Eminent Victorians on American Democracy: The View from Alb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Qin, Yaqing. 2007. "Why Is There No Chines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7: 313-340.
- . 2012. "Culture and Global Thought: Chinese International Theory in the Making." *Revista CIDOB d'Afers Internacionals* 100.
- Rajae, Farhang. 1999. "Paradigm Shifts in Muslim International Relations Discourse." *Studies in Con-*



- temporary Islam* 1: 1-13.
- Ramo, J. C. 2004. *The Beijing Consensus*. London: The Foreign Policy Centre.
- Ren, Xiao. 2008. "Toward a Chines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China and the New International Order*, ed. Wang Gungwu and Zheng Yongnian. London: Routledge.
- Risse, Thomas. 1999. "Let's Argue!': Communicative Action and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4, 1: 1-39.
- Schmidt, Brian C. 1998. "Lessons from the Past: Reassessing the Interwar Disciplinary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2, 3: 433-459.
- Schweller, Randall L. and Xiaoyu Pu, 2011. "After Unipolarity: China's Visions of International Order in an Era of U.S. Decline." *International Security* 36, 1: 41-72.
- Shambaugh, David. 2011.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in China: History, Trends and Prospects."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 Pacific* 11, 3: 339-372.
- . 2013. *China Goes Global: The Partial Pow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Steve. 2000. "The Discipline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ill an American Social Scie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3: 216-255.
- Suzuki, Shogo. 2009. *Civilization and Empire: China and Japan's Encounter with European International Society*. London: Routledge.
- Tammen, Ronald L. 2008. "The Organski Legacy: A Fifty-Year Research Program." *International Interactions* 34: 314-332.
- Tammen, Ronald L. and Jacek Kugler. 2006. "Power Transition and China-US Conflict."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1: 35-55.
- The Economist*. 2011. "Nothing Under Heaven." 16 June.
- Tickner, Arlene B. 2003. "Hearing Latin American Voic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 4: 325-350.
- Tsai, Kellee S. 2007. *Capitalism without Democracy: The Private Sector in Contemporary China*.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ang, Jian, ed. 2011. *Soft Power in China: Public Diplomacy through Communica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Wang, Yiwei. 2009. "China: Between Copying and Construct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hip around the World*, ed. Arlene B. Tickner and Ole Waever, 103-119. London: Routledge.
- Wei, Lili. 2010. "Funding Assessment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 in China" In *Science Report: Knowledge Divides*, UNESCO.
- Wong, Edward. 2015. "China Approves Sweeping Security Law, Bolstering Communist Rule." *New York Times* 1 July.
- Xinning, Song. 2001. "Build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0: 61-74.



- Xu, Jin and Xuefeng Sun. 2016. "The Tsinghua Approach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in China." In *Constructing a Chinese School(s) of International Relations: Ongoing Debate and Critical Assessment*, ed. Yongjin Zhang and Teng-chi Chang, 162-176. New York: Routledge..
- Yan, Fengqiao. 2010. "The Academic Profession in China in the Context of Social Transition: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European Review* 18, 1: 99-116.
- Yan, Xuetong. 2011. *Ancient Chinese Thought, Modern Chinese Powe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Yu Verna. 2015. "Heavy Hands vs. The Power of Words: China Cracks down on Rights Lawyers." *South China Morning Post* July 16.
- Zakaria, Fareed, 2008. *The Post-American World*. New York: Norton.
- Zhang, Feng. 2012. "The Tsinghua Approach and the Inception of Chinese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5: 73-102.
- Zhang, Yongjin and Teng-Chi Chang, ed. 2016. *Constructing a Chines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Ongoing Debates and Sociological Realities*. London: Routledge.
- Zhang, Yongjin, 2013. "China Anxiety': Discourse and Intellectual Challenges." *Development and Change* 44, 6: 1407-1425.
- Zhao, Tingyang. 2006. "Rethinking Empire from a Chinese Concept 'All-Under-Heaven (Tian-xia)'" *Social Identities* 12: 29-41.
- Zhuang, Pinghui. 2014. "Beijing Names New Cultural Chief to Drive Soft-Power Push." *South China Morning Post* December 29.

필자약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네소타(Twin Cities)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인트올라프 대학(St.Olaf College) 초빙조교수, 그리피스 대학(Griffith University) 부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주요연구 분야는 국제 규범 및 제도, 국제인권 및 윤리이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평화적 세력전이의 국제정치》(2015, 공저), *The Mas-sacres at Mt Halla: Sixty Years of Truth-Seeking in South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4), *Transitional Justice in the Asia Pacif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등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본 연구 보고서는 EAI 국가안보패널 (National Security Panel: NSP / 위원장 : 하영선 EAI이사장)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나지원 연구기획실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jiwonra@eai.or.kr

